

김선호 “6개 국어 통역사, 액션보다 힘들었죠”

‘이 사랑 통역 되나요?’

16일 넷플릭스서 공개

홍자매 신작 로코물

3개국 로케이션 촬영

“이탈리아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에 한국어까지 6개 국어에 능통한 통역사 역할이었어요. 4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다음엔 차리리 액션을 할래요.”

배우 김선호는 13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시리즈 ‘이 사랑 통역되나요?’ 제작발표회에서 6개 국어에 능통한 다중언어 통역사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4개월간 다양한 언어를 공부했다고 밝혔다.

이 시리즈는 다중언어 통역사 주호진(김선호 분)이 글로벌 톱스타 차무희(고윤정)의 통역을 맡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다.

오는 1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이 사랑 통역되나요?’는 서로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사랑에 있어서 만큼은 서로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두 남녀의 아이러니를 그린다.

연출을 맡은 유영은 감독은 여려 나라 언어에 능통하지만 사랑의 언어에는 서툰 호진과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만 정작 자기 사랑에는

배우 김선호와 고윤정이 13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이 사랑 통역 되나요?’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툰 무희 역할에 김선호와 고윤정, 두 배우가 잘 맞아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주호진은 언어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디테일한 감정 표현이 중

요한데, 김선호 배우가 코믹이면 코

믹, 로맨스면 로맨스, 캐릭터의 냉

철함도 잘 표현해줬다”고 칭찬했다.

이어 “차무희는 워낙 투명하고,

감정적으로도 솔직한 사랑스러운 인

물”이라며 “고윤정이 가진 순수함과

사랑스러움, 씩씩함이 무희와 잘

맞아있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이 작품은 ‘환호’, ‘호텔 렐루

나’, ‘최고의 사랑’, ‘주군의 태양’ 등을 쓴 홍자매(홍정은·홍미란 작가)의 신작으로 공개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유 감독은 “홍자매 작가님들의 대부분은 참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며 “연출로서 작가님들이 가진 동

화적이고 순수한 시선을 같이 바라보며 작업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다”고 했다.

‘이 사랑 통역되나요?’는 일본부터 캐나다, 이탈리아까지 3개국에 걸친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

완성됐다.

고윤정은 “정말 신기한 게 작품 속에서 오로라를 보는 장면을 촬영하고 돌아오는 길에 실제 오로라를 보게 됐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김선호는 “그만큼 우리 작품이 운이 좋았다”고 의미 부여를 했다.

유 감독도 “현장에서 본 오로라의 기운을 시청자들도 이 작품을 보시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연출을 맡은 유영은 감독은 여려

나라 언어에 능통하지만 사랑의 언

어에는 서툰 호진과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만 정작 자기 사랑에는

어도어 전속계약 해지 후 라이브 방송으로 첫 입장

최근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어도어와 손해 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SNS 라이브 방송으로 입장장을 밝혔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오후 7시 ‘버니즈에게’(Dear Bunnies)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다니엘은 이날 개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국내외 팬들에게 근황과 안부를 전했다. 다니엘이 전속계약 해지 이후 직

접 입장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다만 다니엘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서는 언급을 아꼈다.

다니엘은 “지금 많은 상황이 정리 중”이라며 “때가 되면 소송과 여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관한 상황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9분가량 방송을 진행한 다니엘은 자신을 지지한 팬들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다니엘은 “버니즈(팬덤)를 떠올

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눈

빛”이라며 “무대에서 마주했던 순간들, 음악이 시작되기 전의 정적과 같은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조용히 지탱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벌여오던 다니엘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패소 이후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어도어는 지난달 그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뉴진스 다니엘 “멤버들과 함께하려 끝까지 싸웠다”

어도어 전속계약 해지 후 라이브 방송으로 첫 입장

최근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어도어와 손해 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SNS 라이브 방송으로 입장장을 밝혔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오후 7시 ‘버니즈에게’(Dear Bunnies)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다니엘은 이날 개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국내외 팬들에게 근황과 안부를 전했다. 다니엘이 전속계약 해지 이후 직

접 입장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다만 다니엘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서는 언급을 아꼈다.

다니엘은 “지금 많은 상황이 정리 중”이라며 “때가 되면 소송과 여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관한 상황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9분가량 방송을 진행한 다니엘은 자신을 지지한 팬들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다니엘은 “버니즈(팬덤)를 떠올

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눈

빛”이라며 “무대에서 마주했던 순간들, 음악이 시작되기 전의 정적과 같은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조용히 지탱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벌여오던 다니엘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패소 이후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어도어는 지난달 그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14(수)

연예·TV·운세

<div data-bbox="55 1560 489